국제결혼·스승과의 일화… '오감만족' 불교박람회

2017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이모저모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334개 업체서 490개 부스를 운영하며 지난해 280개 업체 431개 부스에 비해 월등한 성장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네팔, 일본 등 8개국서 60개 부스가 참여해 국제박람회로서 위용을 자랑했다. 3월 23~26일 나흘 간 약 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한국불교 명상을 한 자리서 만나볼 수 있는 명상대제전을 비롯해 붓다아트페스티벌, 사찰음식존 등 한국불교문화의 자랑거리가 한 데 모여 관람객들의 큰 만족을 얻었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관람객들로 가장 붐빈 곳은 '무대법문'이 펼쳐지는 3관 무대였다. 스님들의 법문을 가까이서 듣고자 모인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혜자 스님, 미산 스님, 마가 스님, 월호 스님 등 힐링멘토 스님들이 대거 참여해 불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3일 무대법문의 첫 문을 연 정념 스님은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자리에 모인 300여 불자는 정념 스님이 들려주는 한암 스님의 생

490개 부스 운영, 역대 최대 규모

네팔·일본 등 8개국 참여 돋보여

정념 스님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

무대법문에 300여 불자 감동 물결

상가레·박꽃별 씨 국제결혼도

전 업적에 귀를 기울이며, 한암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정념 스님은 "1925년 일제강점기 때 한암 스님은 전통이 무너지는 한국불교를 보며 '이렇게 가서는 한국불교가 쇄신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시며 지팡이 하나 들고 오대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남기신 말씀이 '내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였다"며 "이후 스님은 27년 동안 동구불출(洞口不出)하시며 계정혜를 두루 갖춘 선지식이 되셨다"고 술회했다.





3월 23일 개막식 후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을 주제로 무대법문을 펼치고 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 왼쪽). 오른쪽은 아마두 마마두 상가레 군과 박꽃별 양의 화혼예식.

그러면서 정념 스님은 한암 스님이 당시 오대산으로 들어가 초대 종정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불교의 지도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종정을 역임하면서도 큰 일념으로 산문 밖을 벗어나지 않고 오대산중에서 주석했기 때문에 일제치하서도 한국불교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단 의미다.

또한 정념 스님은 한암 스님이 이미 35~36세 때 확철대오(廓撤大悟)의 경지를 경험했다면서 현 시대 불자들도 그 깨달음을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온 우주의 인연, 만상은 본래 서로 부딪히거나 부서짐이 없다. 온전한 그대로 자유와 해탈, 열반의 모습을 다 구족하고 있다"며 "이 이치를 알면 세상을 환희롭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머, 진짜 결혼하나봐! 신랑이 외국인이네! 축하해요~"

박람회장 한편에선 이색 풍경이 펼쳐졌다. 말리 출신 아마두 마마두 상가레 군과 박꽃별 양의 화혼예식이 거행된 것. 불교식 혼례인 화혼예식을 단순히 재현하는 모습인줄 알았던 관람객들의 발길이 '진짜 결혼'이란 소리에 멈춰 섰다.

불교지화 명인 정명 스님의 '불교전통지화 특별전' 개막식서 진행된 특별 순서였다. 이날 정명 스님의 꽃꽂이 제자 백련화 보살의 딸 박꽃별 씨와 아프리카에서 온 아마두 마마두 상가레 씨가 불교식 혼례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합장이 어색하지만 부처님 앞에 공손히 예를 표한 마마두 상가레 씨와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는 박꽃별 씨 모습에 지켜보는 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주례를 맡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템플 주지 선각 스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며 행복한 삶을 가꿔 나가길 바란다"며 신랑 신부의 앞날을 기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가족 찾아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3월 22일 팽목항서 기자회견

"햇수로 4년, 일수로는 1072일. 누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못 찾고 있는 가족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3월 22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시험인양을 시작하며 이후 본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온전한 인양을 기도하며 국민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다.

시험인양을 앞두고 팽목항에 나가있는 미수습자 가족 일동은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국민들의 기도를 간절히 호소했다.〈사진〉



미수습자 가족 일동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은화·다윤·현철·영인·양승진·고창석 선생님·권재근·권혁규·이영숙 님을 가족 품에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제 팽목항 앞바다가 파도치고, 바람 부는 가운데 인양작업 한단 연락을 기다리며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며 "사고 당일 망연자실했던 많은 국민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던 그 마음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바다가 잠잠하길, 작업자들의 안전과 공정이 순조롭게 이뤄져서 세월호 인양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시면 인양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수습자 가족 일동은 "가족을 찾아서 집에 가고 싶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싶을까"라면서 "두 번 다시 세월호 같은 아픔이 대한민국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되고,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되는 세상이길 원한다"고 염원했다.

한편 미수습자 가족일동은 이날 기자회견 후 시험인양이 진행되는 사고 해역으로 나갔다. 이 자리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과 김한나 주임이 동행했다. 박아름 기자

전통 살린 10.27법난기념관 들어선다

성역화추진위, 마스터플랜 수립

성역화 조화 중점, 총 2동으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와 함께 추진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가 3월 22일 공개한 '10.27 법난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통건축방식을 도입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사전계획단계 마지막 절차로 2014년 조계종이 수립한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서'와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연구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서울시의 계획방향 및 법적 규제 등 각종 개발여건을 고려했다.

먼저 법난기념관은 1동과 2동으로 구분된다. 1동은 현재 전법회관 일대로 전시동과 추모광장, 사무동 등이 들어서며, 2동은 조계사 내에 법난피해자 스님들을 위한 치유공간으로 활용된다. 사무동을 제외한 건물은 모두 지상 2층 규모의 전통목구조로 건립된다. 1동은 대지면적 3573㎡에 건축면적 1594㎡이며, 2동은 대지면적 926㎡에 건축면적 276㎡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조감도. 사진 오른편 현재 전법회관 위치가 기념관 부지다.

추진위에 따르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은 견지동 45번지 일대 마스터플랜의 일부로써 진행된다. 즉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서울시와 추진 중인 '견지동 역사문화관광 조성사업'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 것이다. 계획 수립에는 도시계획·고건축·현대건축·조경·전시·자료열람실·치유·인테리어 분야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참여했다.

추진위는 경복궁·광화문·북촌·인사동과 연계해 전통문화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유교와 불교문화를 동일 권역서 향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을 보존안'은 △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불가 △지하층 개발 한계 △확정된 시설면적 확보 불가 등으로 인해 논의 과정서 제외됐다.

추진위 총도감 지현 스님은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2019년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현재 2022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향후 실시설계 아이디어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성보, 화재보험 가입 보다 쉬워진다

조계종·삼성화재, 공제사업 협약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사찰과 성보문화재에 대한 보험 가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사업부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은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목조건축물인 불교 사찰과 문화재들은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성보문화재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계종과 삼성화재는 종단 현실에 맞는 공제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조계종 소속 사찰과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및 재해 등 각종 위험관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스님과 종무원 등 종단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정유년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발원합니다.

보살계 일정

입재 2017년 4월 1일 (음.3.5) 토요일

회향 2017년 4월 3일 (음.3.7) 월요일

- 동 참 금 5만원(새마을금고 6269-09-005031-0 예금주 통도사)
- 차량안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출구 앞 - 오전 8시~9시
- 접 수 처 화엄전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 문 의 처 종무소 055)382-7182

영축총림 통도사